

조선시대 강원도의 문화적 정체성과 현재적 의미*

안 세 현**

<目次>

I. 머리말	IV. 탈속과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강원도
II. 조선시대 지리지에 기록된 강원도의 풍속	1. 김시습과 청평사
III. 강원도 형승의 발견과 기행 시문의 창작	2. 김수증과 곡운
	3. 김창흡과 설악산
	V. 현재적 의미: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 초록>

본고는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문집 등을 검토하여 조선시대 강원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찰하고, 그것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 등의 ‘풍속’조를 보면, 강원도는 경기도를 비롯한 여타 지역에 비해 유교적 문명화가 덜 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강원도가 유교문화의 미답지로 인식된 데에는 강릉과 원주를 제외하고는 향교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고 향약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원도는 태초의 순박한 풍속을 그대로 간직하고 토착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였다.

유교문화의 정착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강원도의 풍속에 대한 인식은 부정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4338).

**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부교수 / shahn@kangwon.ac.kr

적이었으나 자연 지리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 관동팔경을 비롯하여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등 강원도의 형승은 사대부 문인들의 대표적인 유람의 공간이었다. 고려 말 안축의 『關東瓦注』와 李穀의 「東遊記」 등과 같은 기행 시문을 통해, 강원도의 형승이 발견되고 사대부 문인들에게 문화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나아가 강원도는 세속의 명리와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속의 공간이자, 정치적 좌절에서 오는 우수나 번뇌를 해소하는 치유의 공간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金時習과 淸平寺, 金壽增과 谷雲, 金昌翁과 雪嶽山 등을 살펴본다.

이제 맹목적인 중앙 추수를 지양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에 주목할 때이다. 강원도는 도시문명에 찌든 현대인을 태초의 시간으로 이끌어 아름다운 산수 속에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현대의 도시문명을 쫓아가기보다는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시원적 공간, 지역의 토착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 형승과 산수가 가져다주는 휴식과 치유 등의 문화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강원도, 문화적 정체성, 유교문화, 형승, 기행 시문, 탈속과 치유

I. 머리말

최근 지방 자치가 정착되면서 각 시군별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고 있다. 대개 지역 축제의 형식으로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문화콘텐츠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이런 점에서 자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심도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正體性’을 고정불변의 실체로 상정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찾아내려는 접근 방법은 곤란하다. 정체성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한다. 그런데 ‘본질적’,

곧 시공간을 초월한 고정불변의 특성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며, 또한 ‘본질적 특성’을 명징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다. 더욱이 ‘문화’라는 것은 여타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고유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의 창조가 가능해진다. 또 일정한 문화 양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더라도 시대에 따라 변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은 과거와 현재, 중앙과 지역, 상층과 하층, 주체와 타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이벤트에 걸맞은 지역문화의 발굴과 문화 관광 자원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강원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강원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그것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松江 鄭澈(1536-1593)이 1580년(선조 13)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 올린 상소의 일부인데, 조선시대 강원도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강원도는 동쪽으로 큰 바다와 접해 있고 서쪽으로 무수한 산을 끼고 있어, 너른 들판이 없고 토양은 모래나 돌이 많습니다. 봄이 와도 여전히 눈이 내리고 가을이 되기 전에 서리가 내려, 곡식은 여문 것이 적고 농토에서는 수확량이 적습니다. … 혹 산골짜기에 다행히 백성들이 살기도 하는데, 모두 한두 가구밖에 되지 않아 마을을 이루지 못합니다. … 강원도는 토양이나 인구가 적어서 참으로 영남과 호남에 있는 큰 고을 하나에도 미칠 수 없습니다.¹⁾

정철이 본 강원도는 산이 많고 들이 적은 지형, 소규모 산촌 위주의

1) 鄭澈, 「江原監司時陳一道弊瘼疏(萬曆庚辰)」, 『松江續集』 권2, 韓國文集叢刊 46, pp.200-202. “蓋其地東濱大海, 西擁衆山, 野無曠平, 地皆沙石, 經春猶雪, 未秋先霜, 禾稼寡實, 田畝少收. 或於山谷中, 幸有民居, 皆一家二家, 不成村落矣. … 其壤地民口之小, 固不可及湖嶺一大村.” 이후 ‘韓國文集叢刊’은 ‘叢刊’으로 약칭함.

촌락, 교통로의 미흡과 외부와의 단절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이다. 그리하여 정철은 강원도가 영호남의 큰 고을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를 정철 한 사람의 편견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인조 연간 강원 감사로 임명된 崔暉(1563-1640)이 부임 전 왕을 알현하였을 때, “강원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남쪽 지방의 큰 府보다도 못합니다.[江原道土瘠民貧, 不如南中一大府.]”²⁾라고 한 것을 보면, 강원도에 대한 정철의 인식은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전근대시기 강원도 인식에 대해서는 주로 김풍기 교수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³⁾ 이를 통해 고려 말 이래 조선전기에 이르는 시기 사대부문인들의 강원도에 대한 인식이 밝혀졌다. 본고는 이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문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강원도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지리지의 경우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물론이거니와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도 추가로 검토한다. 또한 강원도 형승에 주목하여 고려 말 이래 강원도 기행 시문에 나타난 강원도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강원도와 인연이 깊은 조선전기의 김시습, 조선후기의 김수증과 김창흡이 강원도에 은거하게 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강원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자료는 주로 조선시대에, 중앙에서 온, 사대부 관료의 시각이 투영된 기록물이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2) 『승정원일기』 인조(1626) 4년 8월 27일.

3) 김풍기, 「조선전기 관료문인들의 강원도 인식」, 『강원문화연구』 15,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96; 김풍기, 「『東國輿地勝覽』의 江原道 記述 方向 試論」, 『강문문화연구』 16,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97; 김풍기, 「근재 안축의 시문에 나타난 강원도론」, 『강원문화연구』 17, 1998; 김풍기, 「耘谷 元天錫의 강원도 인식과 은거의 의미」, 『강원문화연구』 18,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99; 김풍기, 「허균의 강원도 인식과 민속문화론」, 『박물관지』 8, 강원대학교 박물관, 2001.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만들어낸 정체성이 아니라, 중앙에서 온 유교 지식인의 시각이 투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타자’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왜곡된 정체성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체성은 반드시 ‘주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주체는 타자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만들어간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강원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확립해가는 데에 본고가 일정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조선시대 지리지에 기록된 강원도의 풍속

먼저 조선시대에 편찬된 관찬 지리지의 ‘풍속’조에 기록된 강원도의 풍속을 살펴보겠다. 관찬 지리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제공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공인된 인식을 형성케 한다. 문화 형성의 주체가 인간이므로, 강원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을 위해 지리지의 ‘풍속’조를 주목하게 된 것이다. 조선전기에도 간행된 인문지리지서인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간행)에는 강원도 26개 지역 중에서 9개 지역에만 풍속이 기록되어 있다. 근거할만한 문헌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릉은 『후한서』, 춘천은 李先齊의 시, 홍천은 徐居正의 산문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강원도 9개 지역의 풍속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강릉 : 욕심이 적다. 같은 성씨끼리 혼인하지 않는다. 질병을 싫어한다. 삼 [麻]을 심고 누에를 치며 면포를 만든다. 벌을 살핀다. 벌할 때에는 우마를 받는다. 학문을 숭상한다. 놀이를 좋아한다. 예의를 서로 먼저 한다. 靑春敬老會를 행한다.
- 삼척 : 무당과 귀신을 믿는다. 사람의 성품이 대체로 교활하다. 烏金簪에祭한다.

- 고성 : 고기를 잡아 생업을 삼는다.
- 통천 : 漁鹽에서 나는 이익으로 무역하여 먹는다.
- 울진 : 農桑을 힘쓴다.
- 춘천 : 풍속이 순후하고 아름답다.
- 정선 : 풍속이 순박하다.
- 홍천 : 백성의 풍속이 순박하고 소송이 맑고 간단하다.
- 안협 : 거리와 市井이 서로 보호한다. 葛天氏 때 백성의 풍속이다.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강원도 9개 지역의 풍속은 ‘문명의 미답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삼척은 무당이나 귀신과 같은 미신을 숭상하는 ‘유교적 문명의 미답지’라 할 수 있다. 강릉을 제외한 8개 지역은 공통적으로 순후하고 질박한 태초의 풍속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마치 無爲의 정치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상고 시대 전설상의 제왕인 갈천씨의 세상과 같다는 것이다.

강원도 9개 지역의 풍속에 대한 인식은 강원도 전 지역으로 확대된 『輿地圖書』(영조 연간, 읍지의 종합)와 『강원도지』(1940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여지도서』에는 강원도 26개 모든 지역의 풍속이 기록되어 있다. 9개 지역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거의 그대로 따랐고, 그 외 17개 지역은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여지도서』에 9개 지역을 제외한 17개 지역의 ‘풍속’조는 아래와 같다. 번다함을 무릅쓰고 인용해 본다.

- 원주 : 저축하는 것을 높이 여긴다.
- 영월 :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다. 온순하고 인정이 많다고들 한다.
- 평창 : 근심이나 재난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 풍속이 순박하다고들 한다.
- 양양 : 농사와 양잠에 힘쓴다. 상례와 장례를 돕는다. 잔치를 베풀어 놀기를 좋아한다. 학문을 숭상한다. 예의를 존중한다.
- 평해 : 옛 풍속과 도리를 지키며 살아간다. 검소함과 수수함을 숭상한다. 학문을 높이 여기며 무예를 잘한다. 농사와 양잠에 힘쓰며 고기잡이와 소금 만

4)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47, 강원도, ‘풍속’조.

들이가 흥하다.

• 간성 : 세속의 풍습이 순박하고 어리석다. 글 읽는 이는 적으며 농업에 힘 쓰는 사람은 많다. 옷을 입거나 음식을 먹는 것은 모두 검소함을 따른다. 질병에 걸린 백성이 있어도 의술이나 약을 믿지 않고, 다만 기도만 한다. 까닭에 지역 안에 무당이 많다. 場市와 상인이 없다. 풍속에 음악이나 娼妓를 좋아하지 않는다. 양반이나 서민들이 꽤 상례를 중히 여긴다.

• 흡곡 : 인심이 정성스러우며 굳세니, 자못 함경도의 풍습과 비슷하다. 곡식 농사에 힘쓰고 뽕나무와 삼을 심어서 농사와 길쌈에만 전념한다. 글이나 학문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은 적고 수수하고 허름함이 많으므로 백성들의 풍속이 실로 서투르고 무식하다.

• 김화 :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땅이지만 상례와 장례에 삼가고 조심한다. 사리에 어두워 교화를 따르지 않으니 어리석음을 면하지 못한다. 성품이 꽤 꾸밈없고 순박하며, 생업은 농사와 장사에 부지런하다. 지난 옛날을 살펴보면 학문과 무예를 모두 숭상하여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많았다.

• 이천 : 귀신을 숭상한다. 순박한 사람이 많다. 농사짓기에 힘쓴다.

• 평강 : 귀신을 숭상한다.

• 횡성 : 교화를 세워서 어른들을 공경한다. 농사에 힘쓰며 訟事를 벌여 다 투지 않는다.

• 인제 : 두메산골에 풍속이 순박하다. 농사에 힘써서 생계를 유지한다. 오래 사는 사람이 많으니, 더러는 백여 살에 이른다.

• 회양 : 상례와 장례를 조심스럽게 행하며, 무당과 박수를 숭상한다. 곡식농사에 열심이며 칩배 옷을 짜는데 힘쓴다. 더러는 담배를 재배하여 영동 지방의 해산물과 바꾸어서 생계를 유지한다. 성실하고 순박하며 검소하고 인색하다.

• 철원 : 풍속이 순박하며 송사가 까다롭지 않다.

• 양구 : 순박하며 농사에 힘쓴다. 아울러 학문과 무예도 숭상하여 더러는 생원이나 진사도 나오고, 더러는 문과나 무과에 합격한다.

• 낭천 : 백성들이 송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직 농업과 양잠에 힘쓰며, 유학을 숭상하지도 않고 또 공업과 상업도 일삼지 않는다. 활쏘기를 좋아하나 과거를 보는 일은 드물다. 예로부터 고을에 場市가 없다. 산에 사는 백성들은 곳곳에서 화전을 경작하며, 한 지역에 붙어 지내지 않고 옮겨 다니는 일이 잦다.

• 금성 : 상례와 장례를 성실하게 행하며, 미신을 숭상한다. 곡식농사에 힘쓰는데, 더러는 담배를 재배하여 영동과 영서 지방의 수산물과 바꾸어서 생계를

유지한다.⁵⁾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9개 지역의 풍속은 『여지도서』에 몇 가지 추가된 것은 있으나 거의 그대로 따랐다. 삼척의 경우 “무당과 귀신을 믿는다.”와 함께 “검소하며 꾸밈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 울진은 “학문과 무예를 숭상하며 사치하지 않고 수수하다. 산과 내는 많은데 논과 밭은 적다. 생활이 어려워 주민들이 가난하다.”가 추가되었다.

『여지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강원도 26개 지역의 풍속을 검토해 보면, 강릉·양양 등을 제외하고는 한성부처럼 ‘儒術에 돈독하다’거나 ‘詩書 선비를 가르친다’ 등의 유교 문명화와 관련된 언급이 거의 없다. 오히려 낭천의 경우에는 ‘유학을 숭상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이천·평강·희양 등은 귀신·무당·미신 따위를 숭상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간성·흡곡 등처럼 백성들이 어리석고 무식하다 등의 표현까지 보이기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의 관한 지리지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李重煥(1690-1756)이 지은 『擇里志』에도 강원도의 풍속에 대한 인식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중환은 「卜居總論」의 ‘인심’조에서 “강원도는 산골 백성이어서 많이 어리석다.[峽氓多蠢]”고 하였다. 강원도만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의 인심이나 풍속을 유교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본 것임에는 분명하다.⁶⁾ 요컨대 유교화를 척도로 할 때 강원도는 경기도를 비롯한 여타 지역에 비해 유교적 문명화가 덜 된 지역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지리적으로 강원도는 서울·경기 지역과 인접해 있다. 오늘날은 교통이 발달하면서 강원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다. 그러나 문화

5) 『국역 여지도서』 책15-17, 강원도, ‘풍속’조.

6)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인심’조, “我國八道中, 平安道人心醇厚爲上, 次則慶尙道, 風俗質實. 咸鏡道地接胡境, 民皆勁悍. 黃海道則山水險阻, 故民多獯暴. 江原道則峽氓多蠢, 全羅道則專尙狡險易動. 以非京畿都城外野邑則民物凋弊, 忠淸道則專趨勢利. 此乃八道人心之大略也, 然此從庶民, 而論至於士大夫風俗則又不然.”

적으로 보면 예나 지금이나 강원도는 서울·경기 지역과 많이 다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한성부의 풍속을 보자.

신의를 숭상하고 儒術에 돈독하다. 의관 제도는 모두 중국과 같다. 천성이 유순하다. 백성과 물산이 크게 이루어졌다. 魯나라처럼 어진 이가 많다. 집집마다 순후하다. 詩書로 선비를 가르친다. 의관으로 禮讓한다. 詩書의 숲이다.⁷⁾

조선시대 문명화의 척도는 유교문화가 기준이 된다. 강원도가 유교문화의 미답지로 기술되어 있는데 반해, 한성부는 정치·경제·문화·교육의 중심지이자 문화적으로 중국화와 유교화가 완성된 곳으로 기술되어 있다. 강원도가 유교문화의 미답지로 인식된 데에는 중앙의 유교문화가 강원도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교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향교와 향약이다.⁸⁾ 그런데 조선 전기에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를 제외하고는 향교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성종 연간 강원도의 향교에 學田(학교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된 토지)을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李克基(1426-1489)는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의 경험을 거론하면서, “강릉과 원주는 선비가 많기로 이름이 났으며 향학에서 학업을 익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서로 잇따랐으나 다른 고을은 없었습니다.”라고 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⁹⁾ 인조 연간에 철원에서는 국가가 설립한 관학 기관이자 성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향교가 어느 백성에 의해 불태워진 사건도 있었다.¹⁰⁾

16세기 향촌 사회에서 향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토착 문화와의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삼척의 烏金簪祭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금잠제

7)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한성부, ‘풍속·조.

8) 조선시대 강원 지역에 향교·향약이 정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안세현, 「강원 지역의 유교 문화와 지역성-향교·향약의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東아시아古代學』 31, 東아시아古代學會, 2014, pp.365-384 참조.

9) 『성종실록』 11년(1480) 4월 16일.

10) 『인조실록』 10년(1632) 4월 4일.

를 행할 때 무당들이 춤을 추며 굿을 하고, 전체적인 행사 주관은 고을의 戶長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중앙에서 파견된 삼척부사는 흑세무민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오금잡제를 유교적 합리주의의 견지에서 폐지하려고 하였다. 1575년(선조 34)에 삼척 부사로 부임한 金孝元(1542-1590)는 유생들을 동원하여 오금잡을 강제로 철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삼척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¹¹⁾ 이 사례를 통해 강원도는 중앙의 유교 문화가 정착되기 힘들 정도로 지역의 토착문화에 대한 애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는 유교화가 덜 되었다 뿐이지, 태초의 순박한 풍속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지리지의 풍속조에서 강원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풍속이 순박하다’는 것이다. 인정이 많고 검소하여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訟事를 벌여 싸우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삼척의 오금잡제처럼 강원도는 지역의 토착문화에 애착을 가지고 이를 잘 지켜나가는 지역이기도 하였다. 유교문화의 정착 정도를 떠나, 순박·인정·검소·상부상조 등의 문화 요소와 토착문화에 대한 애착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강원도 형승의 발견과 기행 시문의 창작

유교 문화의 정착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조선시대 강원도의 풍속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자연 지리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 이

11) 관련 내용이 다음에 자세하게 보인다. 李垞 撰, 「言行錄」, 『省菴遺稿』附錄, 叢刊41, p.379. “公出宰三陟, 以安民祛弊爲先務. 邑有金釵一股, 傳自羅代, 百襲封緘, 藏者城隍祠, 居民信奉之如神明. 凡村閭大小事, 必先告然後乃行, 故巫覡日娑娑其下, 有同宛丘之俗. 經千百載, 惑世滋甚, 而弊至難救. 公慨然有掃清之意, 擇良日, 備祭需, 招士子稍强者若干人. 躬詣淫祠, 撞破釵股, 投之火中. 盡一鄉小長, 奔呼咸集, 而驚動禍福之. 公毅然不動, 灑掃堂宇, 書置城隍位板於其中, 整冠服而親祭焉. 觀瞻悚然, 莫不歎服.”

중환은 “산수의 경치가 훌륭한 곳은 강원도 영동을 첫째로 꼽는 것이 마땅하다.[山水之勝，當以江原嶺東爲第一.]”¹²⁾라고 하였다. 또한 ‘관동팔경’으로 대표되는 강원도의 승경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누대와 정자 등 훌륭한 경치도 많아, 흡곡의 侍中臺, 통천의 叢石亭, 고성
三日浦, 간성의 淸澗亭, 양양의 靑草湖, 강릉의 鏡浦臺, 삼척의 竹西樓, 울진의
望洋亭을 사람들이 ‘關東八景’이라 부른다. 아홉 고을의 서쪽에는 금강산, 설악
산, 두타산, 태백산 등이 있는데, 산과 바다 사이에 기이하고 훌륭한 경치가 많
다. 골짜기가 그윽하고 깊숙하며 물과 돌이 맑고 조출하여, 간혹 仙人의 신이한
유적이 전해 오기도 한다.¹³⁾

이중환은 관동팔경과 함께 금강산, 설악산 등 강원도의 빼어난 산을 거론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산악 지역이긴 하나, 강원도하면 역시 경치가 훌륭한 산을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成海應(1760-1839)은 「記關東山水」(『연경재전집』 권51)에서 강원도의 대표적인 산수로 聖留窟, 五臺山, 寒溪, 雪嶽, 華陰山, 石泉谷, 淸平山 등 8곳을 들었는데, 성해응 역시 강원도의 산수로 오대산, 설악산, 청평산 등의 산에 주목을 하였다.

1940년에 간행된 『강원도지』에서 ‘山川’조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강원도지』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와는 달리 건치 연혁, 위치 및 지세로부터 冊板, 叢談에 이르기까지 60개의 조목으로 나누고, 각 조목의 하위에 26개 군별로 내용을 수록하였다. 권2에 수록되어 있는 ‘산천’조는 전체 분량의 1/10이 넘을 정도로 60개 조목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분량이 이처럼 많은 것은 강원도에 그만큼 형승이 많기도 하거니와, 형승에 붙인 여러 문인들의 시문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12)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山川」조.

13)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江原道」조. “多樓臺亭觀之勝，若歛谷之侍中臺·通川之叢石亭·高城之三日浦·杆城之淸澗亭·襄陽之靑草湖·江陵之鏡浦臺·三陟之竹西樓·蔚珍之望洋亭，國人號爲關東八景。九郡之西則爲金剛·雪岳·五臺·頭陀·太白等山，山海之間，多奇勝處，洞府幽深，水石淸潔，或傳仙靈異蹟。”

단적으로 고려 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의 산수 유람에 대한 시문을 모아 놓은 『臥遊錄』(필사본 12책, 장서각 소장)을 보면, 약 230편중에서 강원도 지역이 93편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다.¹⁴⁾

다음은 조선전기의 문인 徐居正(1420-1488)이 지은 시의 일부이다.

君不見稼亭李先生東遊記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가정 이선생의 「동유기」를
 又不見謹齋安大夫瓦注編 또 보지 못했는가, 근재 안대부의 『와주편』을.
 關東形勝天下少 관동의 형승은 천하에 드물어
 風流往往皆儒仙 풍류 즐긴 사람은 왕왕 모두 儒仙이었지.¹⁵⁾

서거정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 말 安軸(1282-1348)이 지은 『關東瓦注』와 李穀(1298-1351)의 「東遊記」는 금강산과 관동팔경이 사대부 문인들의 유람 코스로 자리 잡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동 유람의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 안축은 1330년(충숙왕 17) 5월에 江陵道 存撫使로 강원도에 와서 1331년(충혜왕 1) 9월에 임기를 마치고 개성으로 돌아왔다. 1년 4개월 동안 고성, 통천, 양양, 간성, 정선, 삼척, 울진, 평해 등 관동 지역을 순시하면서 지은 시문을 『관동와주』로 엮었다. 李齊賢(1287-1367)은 『관동와주』의 서문에서 안축의 시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아름다운 자연을 읊조리고 노래하며 물상을 묘사한 것은 참으로 옛사람에게 손색이 없고, 感憤하여 지은 작품은 풍속의 득실 및 백성의 苦樂에 관계된 것이 열에 아홉이니, 읽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¹⁶⁾

이제현이 말한 바 강원도의 풍속과 백성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14) 『臥遊錄』 소개 작품의 지역별 목록에 대해서는 이종목, 「『臥遊錄』 해제」, 『臥遊錄』,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영인, 1997), pp.22-30 참조.

15) 徐居正, 「關東行, 送江原柳都事兼簡成監司」, 『四佳詩集』 권46, 叢刊11, p.71.

16) 李齊賢, 「關東瓦注序」, 『謹齋集』 권1, 叢刊2, p.451. “其感憤之作, 關乎風俗之得失·生民之休戚者, 十篇而九, 讀之使人慘然.”

작품이 안축의 「三陟西樓八詠」이다.¹⁷⁾ 이 시는 관동팔경의 하나인 죽서루에서 바라본 여덟 가지 풍경을 읊은 시이다. 죽서루는 두타산의 푸른 숲, 굽이쳐 흐르는 五十川,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었다. 안축은 죽서루 주변의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도 관심을 쏟았다.

依山村舍
傍山煙火占孤村
竹下紅桃臥守門
力穡田夫皆惜日
戴星服役返乘昏

산에 기댄 촌집
산 옆 연기는 외로운 마을을 차지하고
대나무 아래 복사꽃은 누워서 문을 지키네.
힘써 밭가는 농부는 모두 시간을 아껴
별빛 이고 일을 하다 어둠 타고 돌아오네.¹⁸⁾

위 시는 산비탈에 자리한 시골집을 시제로 한 것이다. 1·2구에서는 시골집의 모습을, 3·4구에서는 밤까지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농부의 모습을 읊었다. 안축은 죽서루를 인문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그렸던 것이다.

이곡은 1349년(충정왕 1) 가을에 개성을 출발하여 철원을 거쳐 금강산을 돌아보고, 통주, 고성, 강릉, 삼척, 평해 등지를 유람한 뒤 「동유기」라는 기행문을 남겼다. 철령으로부터 평해에 이르기까지 천이백 리 길, 8월 14일 개성을 떠나서 9월 21일 평해 월송정에 도착할 때까지만 보아도 한 달이 훨씬 넘는 긴 여정이었다. 날짜 별로 여정과 풍경, 소감 등을 기록해 놓았는데, 아래의 인용문은 통천의 國島 부분을 돌아보고 그 소회를 기록한 것이다.

17) 안축의 시문에 나타난 강원도 인식과 「삼척 서루 팔영」에 대해서는 김풍기, 「謹齋 安軸의 詩文에 나타난 江原道論-『관동와주』를 중심으로」, 『강원문화연구』 17, 1998; 안세현, 「여말선초 八景詩의 창작 양상과 삼척 竹西樓八詠」, 『강원문화연구』 34,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15 참조.

18) 安軸, 「三陟西樓八詠」, 『謹齋集』 권1, 關東瓦注, 叢刊2, p.452.

배를 돌려 북쪽으로 가니 이번에는 한 면이 둘러친 병풍과 같은 곳이 있기에, 배를 놔두고 내려가서 배회하며 더위잡고 기어오르기도 하였다. 대개 그 바위는 동굴과 다름이 없었지만 단애가 그다지 높지 않았고 그 아래는 조금 평이하였으며 등근 바위가 배열된 곳에는 천명도 앉을 만하였으므로, 유람을 온 사람들은 으레 이곳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나, 풍량이 일까 걱정도 되었고 게다가 그곳은 익힌 음식을 먹는 속세의 사람이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었다.¹⁹⁾

이곡의 「동유기」는 조선시대 지어진 금강산, 관동 유람 기행문의 전범이 되었다. 인용문에서도 언뜻 내비치고 있듯이, 이곡과 같은 문인 지식인들에게 관동 기행은 탈속을 경험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관동지방 기행문 중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洪仁祐(1515-1554)의 『關東日錄』(일명 ‘關東錄’)을 들 수 있다. 홍인우는 1553년(명종8) 4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매부 南彦經(1528-1594), 許忠吉 등과 함께 금강산, 관동 일대의 명승지를 유람하고 日記體 기행문인 『관동일록』을 지었다. 홍인우의 『관동일록』에는 李滉(1501-1570)이 서문을 쓰고, 李珥(1536-1584)가 발문을 썼다. 날짜별로 날씨, 여정, 산수 감상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주요 여정은 ‘서울 출발→김화→철원 단발령→내금강→외금강→통천→고성→양양→강릉→평창→주천→원주→서울 도착’이다. 홍인우의 『관동일록』은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널리 읽혔으며, 금강산 유기 選集인 『金剛集錄』(장서각 소장 필사본 4책)과 조선시대 산수유기 선집인 『臥遊錄』(장서각 소장 필사본 7책)에 모두 수록되어 전한다.

이황은 서문에서 “산을 유람하는 妙와 물을 관찰하는 術을 오직 홍인우가 터득하였다.[遊山之妙, 觀水之術, 惟洪君能得之也]”라고 하였듯이, 『관동일록』은 성리학자 기행문의 전형을 보여준다. 다음은 4월 24일 홍

19) 李穀, 「東遊記」, 『稼亭集』 권5, 叢刊3, p.131. “回舟而北, 又有一面如圍屏者. 捨舟而下, 徘徊攀緣, 大槩石與窟無異, 而崖不甚高. 其下稍平易, 其圓石排列者可坐千人. 遊觀者必憩息於此, 有人留飲, 慮其風作, 且非烟火食者所住.”

인우가 길안내를 한 승려 性淨에게 한 말인데, 여기에서 산수 유람에 대한 홍인우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우뚝하여 고요한 것은 내 그것이 산임을 알아서 그 고요함을 체득하면 중후하여 흔들리지 않은 어둠을 채울 수 있다. 잔잔하게 일렁이는 것은 내 그것이 물임을 알아서 그 움직임을 살피면 두루 흘러 막힘이 없는 지혜를 또한 체득할 수 있다. 더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근원을 찾는 것은 학자가 할 일이다.²⁰⁾

인용문에서 공자의 樂山樂水를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곧 홍인우는 산수 유람을 통해 仁과 智를 체득하고, 낮은 데서 높은 봉우리를 오르듯 학문의 단계를 밟아 옛 성현의 뒤를 잇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성리학자의 전형적인 산수유람 태도이다. 홍인우가 성리학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관동일록』 곳곳에서 여행이 주는 자유로움과 산수 경물을 관람하는 흥취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모래는 하얗고 바다는 푸르러서 맑은 흥취를 거두어들이기 어려웠다. 나는 홀연히 말에서 내려 모래사장 위로 몸을 던져 이리저리 구르며 넓기를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하였다. 사람들은 혹 미친놈이라 하였을 것이다.²¹⁾

인용문은 5월 9일 경포대로 가는 길에 동해의 백사장을 보고 홍인우가 흥취에 취한 모습이다. 홍인우는 마치 미친 사람마냥 하얀 모래사장에 몸을 던져 흥취를 만끽하였다. 홍인우와 같은 도학자에게도 관동 기행은 도학자로서의 체통과 세속적 규범을 내려놓고 맘껏 자유와 흥취를

20) 洪仁祐, 「關東錄」, 『恥齋遺稿』 권3, 叢刊36, p.64. “峙然而靜者, 吾知其爲山, 而體其靜, 可以充厚重不遷之仁. 淪然而動者, 吾知其爲水, 而察其動, 亦可體周流不滯之智. 況自卑昇高, 泝流尋源, 學者事也. 若以極頭地爲可追, 十分用力, 有腳踏實地之勇, 則吾猶可及古人.”

21) 洪仁祐, 「關東錄」, 『恥齋遺稿』 권3, 叢刊36, p.68. “沙白海碧, 清興難收. 余忽下馬投沙上, 轉身而臥, 若狂者焉. 人或謂之狂.”

즐기는 공간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도는 고려 말부터 사대부 문인들의 기행 시문의 창작 공간이었으며, 이들이 남긴 시문을 통해 강원도의 형승이 비로소 발견되고 사람들에게 문화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IV. 탈속과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강원도

조선시대 사대부 문인들에게 관동팔경을 비롯한 강원도의 형승은 단순히 유람의 공간만이 아니었다. 앞에서 인용하였던 서거정의 시구를 다시 보자.

關東形勝天下少
風流往往皆儒仙

관동의 형승은 천하에 드물어
풍류 즐긴 사람은 왕왕 모두 儒仙이었지.²²⁾

서거정이 말하였듯이, 강원도의 형승을 유람한다는 것은 儒者가 仙人이 되는 것이었다. 앞서 III장에서 인용한 글을 보더라도, 이중환은 강원도의 산수에 “간혹 仙人의 신이한 유적이 전해온다.”고 하였고, 이곡은 국도를 두고 “익힌 음식을 먹는 속세의 사람이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홍인우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백사장에 몸을 던져 구르며 여행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였다.

이런 점에서 강원도는 세속의 명리와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속의 공간이자, 정치적 좌절에서 오는 우수나 번뇌를 해소하는 치유의 공간이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金時習과 춘천의 淸平寺, 金壽增과 화천의 谷雲, 金昌翁과 인제의 설악산 등을 들 수 있다. 김시습·김수증·김창흡은 모두 서울 출신의 유교 지식인들이었다. 김시습은 세상과 결

22) 徐居正, 「關東行, 送江原柳都事兼簡成監司」, 『四佳詩集』 권46, 叢刊11, p.71.

코 화합할 수 없었던 방랑자였으며, 48세 때의 2차 방랑에서 강원도, 특히 춘천의 청평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수증과 김창흡은 백부와 조카 사이로, 숙종 연간 극심하였던 당쟁 속에서 각각 화천의 곡운과 인제의 永矢庵에 은거하였다. 이들에게 강원도는 번잡한 세상사를 잊고 본연의 자기를 응시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1. 김시습과 청평사

金時習(1435-1493)은 조선초기의 학자이자 문인으로, 본관은 강릉, 자는 悅卿, 호는 梅月堂·清寒子·東峰이며, 법호는 雪岑이다.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5세 때 시를 지어 세종대왕에게 칭찬을 받았고 ‘五歲神童’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특출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21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하던 중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3일간 통곡한 뒤, 공부하던 책을 모두 불사르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는 중이 되어 전국의 산사를 유랑하였다. 1481년(성종 12) 47세 때 머리를 다시 기르고 안씨를 부인으로 맞아 還俗하였으나, 1482년(성종 13) 폐비 윤씨(성종의 계비이자 연산군의 생모)의 사사 사건이 일어나자 다시 방랑을 떠났다.

김시습의 2차 방랑 때 첫 행선지가 바로 관동지방이었으며, 도중에 춘천 청평사에 머물러 지냈다.²³⁾ 당시 지은 시들이 『맹월당시집』 권13의 「關東日錄」과 「溟州日錄」에 수록되어 전한다. 다음은 춘천의 소양정에 올라 감회를 읊은 시이다.

鳥外天將盡	새가 나는 저쪽에 하늘은 다하건만
愁邊恨不休	근심 곁에 한스러움은 그치질 않네.
山多從北轉	산은 대부분 북쪽에서 굽어 오고

23) 김시습의 2차 방랑과 「관동일록」에 수록된 시에 대해서는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pp.483-567 참조.

江自向西流	강은 절로 서쪽을 향해 흘러가네.
雁下沙汀遠	기러기는 아스라한 모래톱으로 내려왔고
舟回古岸幽	배는 그윽한 옛 언덕으로 돌아오네.
何時拋世網	어느 때에야 세상 그물을 던져 버리고
乘興此重遊	흥에 겨워 다시 여기 와서 놀거나. ²⁴⁾

「소양정에 올라서[登昭陽亭]」 3수 중 제1수이다. 소양정은 조선시대에 ‘二樂樓’라고도 불렀는데, ‘二樂’는 樂山樂水에서 따온 것으로 산은 鳳儀山을, 수는 昭陽江을 가리킨다. 김시습은 소양정에 올라 주변의 풍광을 돌아보며 흥취가 아닌 우수에 젖어 있다. 당시에 지은 시들을 보면, ‘나의 재주는 세상과 서로 맞지 않는다.’[我才與世不相當], ‘나와 세상은 서로 어긋남이 심하다.’[身世相違甚]라고 하며, 자신과 세상과의 불화를 자주 언급하였다. 요컨대 김시습의 방랑은 세상과의 불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김시습으로서는 왕실에서 벌어지는 패륜적인 사건과 이에 대해 분개하지 않는 지식인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허균은 『惺叟詩話』에서 이 시를 두고 “俗氣를 떨쳐버려 和平하고 澹雅하니, 그저 자구나 다듬은 사람들은 응당 앞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높이 평가하였다.²⁵⁾ 또한 김창흡은 “흥을 붙인 것이 심원하고 경치를 묘사한 것이 펴진하다.”고 하면서 소양정을 읊은 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로 평가하였다.²⁶⁾

다음 시는 김시습이 청평사의 세향원에서 지낼 때 지은 것인데, 당시의 심리 상태와 청평사에 머물게 된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

有客清平寺 나그네 청평사에 찾아 왔으니

-
- 24) 金時習, 「登昭陽亭」 其一, 『梅月堂詩集』 권13, 關東日錄, 叢刊13, p.292.
 25) 許筠, 「惺叟詩話」, 『惺所覆瓿藁』 권25, 叢刊74, p.361. “脫去塵白, 和平澹雅, 彼纖靡雕琢者, 當讓一頭也.”
 26) 『關東誌』(原文) 권6, 春川, 「題詠錄」, p.300. “寄興之遠·寫境之眞天然, 昭陽亭詩合居上頭.”

春山任意遊	봄 산에서 마음 가는 대로 노니네.
鳥啼孤塔靜	새 울어도 외로운 탑은 고요하고
花落小溪流	꽃이 저도 작은 시냇물 흘러만 가네.
佳菜知時秀	맛난 나물 철을 알아 빼어나고
香菌過雨柔	향긋한 버섯은 비 온 뒤 연하네.
行吟入仙洞	시 읊조리며 선동으로 들어가니
消我百年愁	인생 백년의 시름 사라지누나. ²⁷⁾

청평사는 청평산에 있는 절로 고려전기에 창건되었으며 ‘文殊院’이라고도 하였다. 청평산에는 九松臺·龍潭·影池·西川·仙洞 등의 명소가 많은데, 고려 광종 때 李資玄이 벼슬을 버리고 37년 동안 이곳에 은거하면서 명소가 되었다. 김시습은 청평사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봄날의 한적함을 즐기고, 선동으로 들어가며 삶의 시름을 떨쳐버리고 있다. 선동은 일찍이 이자현이 소요하던 곳이다. 허균은 『國祖詩刪』에서 제2구 ‘春山任意遊’을 두고, “한껏 한적하다[閑適自任]”라고 평하였다.²⁸⁾ 이 시는 孤寂感和 함께 세속의 번뇌를 떨쳐버리고자 하는 초탈의식이 보인다.

2. 김수증과 곡운

金壽增(1624-1701)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 자는 延之, 호는 谷雲이며 서울에 거주하였다. 정묘호란 때의 대표적인 척화신이었던 金尙憲(1570-1652)의 손자로, 조선후기 대표적인 명문가 중의 하나인 ‘壯洞金門’ 출신이다. 1650년(효종 1) 생원이 되었고, 1652년 翊衛司洗馬가 되었으며, 형조·공조의 정랑을 두루 역임하였다.

김수증은 화천에 두 차례 은거하였다. 1670년(현종 11) 화천에 卜居할 땅을 마련하고 籠水精舍를 지었다. 1675년(숙종 1) 성천부사로 있을 때,

27) 金時習, 「有客」, 『梅月堂詩集』 권13, 關東日錄, 叢刊13, p.293.

28) 許筠, 『國朝詩刪』 권4,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0, p.385.

동생 金壽恒(1629-1689)이 스승 宋時烈과 함께 유배되자 벼슬을 버리고 화천의 谷雲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중국 송나라 朱熹의 武夷九曲을 모방하여 ‘谷雲九曲’이라 하고, 화가 曹世傑에게 『谷雲九曲圖』를 그리게 하였다. 이것이 김수증의 1차 은거기에 해당된다. 그 후 김수증은 다시 출사를 하였으나, 1689년 기사환국으로 동생 김수항이 사사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화음동에 은거하였다. 화음동은 곡운동에서 4~5리 북쪽으로 더 들어간 곳으로 김수증이 이름을 붙였으며, 여기에 화음정사를 짓고 은거하였다. 이 무렵 김수항의 둘째 아들이자 조카인 金昌協은 양평에 은거하였고, 셋째 아들인 金昌翕은 포천의 백운산에 은거하였는데, 한 집안이 인접한 지역에서 은거하면서 서로 왕래하였던 것이다. 그 후 김창흡이 인제의 백담사 계곡 지역에 百淵精舍를 짓고 은거하여, 세 사람은 인제를 중심으로 서로 왕래하였다. 김수증은 1691년 조카 김창흡과 함께 화천의 화음동에서 출발하여 인제의 한계산을 유람하고 「寒溪山記」를 지었다. 또 1698년에는 한계사지-대승폭포-대승암-대승령-후선동계곡 등을 거쳐 김창흡이 은거하던 백연정사를 방문하였는데, 이때의 유람은 「遊曲淵記」로 남기도 하였다. 이것이 2차 화천 은거기에 해당된다.

김수증은 화천에 은거하면서 많은 시문을 남겼는데, 문집인 『곡운집』(목판본 6권 3책)에 수록되어 전하는 대부분의 시문이 곡운 은거기에 지은 것들이다. 대표적인 시문으로 「谷雲題詠」 8수를 비롯하여 「谷雲記」, 「華陰洞誌」, 「有知堂記」, 「無名窩記事」 등을 들 수 있다.²⁹⁾

心無外物侵	마음이 외물에 흔들리지 않아
身在松雲裡	몸은 소나무와 구름 속에 있네.
陶然北窓風	복창 바람에 취한 듯 즐거우니
聊憑南郭几	남곽자기처럼 안식에 기대어 있네. ³⁰⁾

29) 김수증의 화천 은거에 대해서는 허남옥·권혁진, 『곡운과 다산, 곡운구곡을 걷다』(화천문화원, 2013) 참조.

30) 金壽增, 「谷雲題詠, 次晦翁雲谷韻-臥雲菴」, 『谷雲集』 권1, 叢刊125, p.140.

위 시는 「谷雲諸詠」 8수중에서 「臥雲菴」에 붙인 것이다.³¹⁾ 시제인 「臥雲」은 은거를, 2구의 「松雲」은 은거지의 정경을 상징한다. 당나라 이백이 지은 「맹호연에게[贈孟浩然]」의 「홍안에 관직을 버리고, 백수에 송운에 누웠네[紅顏棄軒冕, 白首臥松雲]」에서 취의한 것이다. 3구의 「北窓風」은 도연명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뉴월 북창 아래에 누웠는데 서늘한 바람이 잠시 불어오면 희황씨의 사람처럼 느껴졌다.”라고 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³²⁾ 또 4구에서 김수증은 은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南郭子綦에게 빗대었다. 남곽자기는 『장자』 「齊物論」에 나오는 인물로, 안석에 기대고 앉아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게 한숨을 쉬는데, 멍하니 몸이 해체된 듯이 자기 짝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³³⁾ 곧 남곽자기는 物我의 구분을 잊은 淸高하고 淡泊한 인물의 전형이다. 요컨대 이 시는 세속적 명리와 같은 외물을 마음속에서 떨쳐버리고, 늘그막에 자연 속으로 물러나 담박한 삶을 즐기는 은자의 삶을 읊은 것이다.

김수증은 극심한 당쟁의 과정에서 아우 김수항의 죽음과 가문의 몰락을 겪었고, 화천의 곡운에 은거하여 자연 속에서 지내며 비애와 울분을 해소하였다. 다음은 「無名窩記事」의 마지막 부분이다.

근년에 또 슬프고도 괴로운 마음이 있었지만 불평을 털어 놓을 데가 없었다. 산에 들어온 이후로는 마음과 눈이 모두 병들어 서책마저 팽개치고 보니 심회를 의탁할 곳이 없었다. 이에 봄과 여름에 화창하고 따뜻해지는 때를 만나, 지팡이를 끌고 문을 나서 개울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풍광과 경치 속에 머물다 보니, 정신의 피곤함을 느끼지도 못하여 저녁이 되어 돌아오곤 하였다.³⁴⁾

31) 김수증의 곡운 은거 시기의 시에 대해서는 이경수, 「곡운 김수증의 은둔시」, 『강원문화연구』 25,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06 참조.

32) 陶淵明, 「與子儼等疏」, 『陶淵明集』 권7, “五六月中, 北窓下臥, 遇涼風暫至, 自謂是羲皇上人.”

33) 『莊子』 「齊物論」. “南郭子綦隱机而坐, 仰天而嘘, 荅焉似喪其耦. 顔成子遊立侍乎前, 曰:何居乎? 形固可使如槁木, 而心固可使如死灰乎? 今之隱机者, 非昔之隱机者也.”

34) 金壽增, 「無名窩記事」, 『谷雲集』 권4, 叢刊125, p.221. “比年又感慨悲苦, 無聊

이 글은 갑술년(1694) 가을[甲戌 秋日]에 지은 것인데, 이 해에 기사환국(1689) 때 사사되었던 동생 김수항의 신원이 복권되었다. 이 글에서 김수증은 1689년 이후 1694년까지 화음동의 無名窩에서 지낸 일들을 기록하였다. 조카 김창흡이 말했듯이, ‘無名’은 『노자』 1장의 “無名은 천지의 시초요, 有名는 만물의 어머니이다.[無名, 天地之始; 有名, 萬物之母]”에서 취의한 것으로, 김수증이 자신의 거처를 ‘무명’이라 이름 한 데에는 세속의 名利를 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³⁵⁾ 김수증은 기사환국 이래로 현실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줄곧 곡운에 은거하였다. 인용문에서 근년에 슬프고도 괴로운 마음이 있었다고 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김수증은 극심한 당쟁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정치에 대한 불만을 곡운에 은거하여 주변의 산수를 소요하면서 해소하였던 것이다.

3. 김창흡과 설악산

金昌翁(1653-1722)은 조선후기의 학자로, 본관은 안동, 자는 子益, 호는 三淵이다.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영의정 김수항의 셋째 아들로, 김수증은 그의 백부가 된다. 1689년(숙종15) 기사환국 때 아버지가 유배지 진도에서 사사되자, 형 昌集·昌協과 함께 永平에 은거하였다. 1698년(숙종24) 46세에 곡백연(현 백담계곡)의 입구에 百淵精舍라는 板屋으로 된 정사를 짓고 장기간 은거의 기반 마련하였다. 1707년 55세에는 백연정사를 보수하고 정사 동쪽에 샘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으며, 곡백연에서 평생을 은

不平。入山以後，心目俱病，拋棄簡策，無所寓懷。當其春夏和暖，曳杖出門，循溪傍山，留連光景，不覺神疲，竟晷而返。”

- 35) 金昌翁, 「無名窩記」, 『三淵集』 권24, 叢刊24, p.492. “夫名者, 衆人之所趨而達人之所遺也。然而有名利之名, 有名相之名, 其謂實之賓也者, 以近爭而外之也。其謂萬物之母也者, 以合有而存之也。今以伯父所在言之, 名利之名, 白雲嶺以外事也。”

둔할 뜻을 굳히고 벽운사 동쪽에 碧雲精舍를 지었다. 1708년 벽운정사가 불에 타버려 深源寺로 거처를 잠시 옮겼다가, 1709년 57세에 永矢庵(현 인제군 용대리)을 완성하고 거처하면서 설악산과 금강산, 양양과 강릉 등지를 유람하였다.

김창흡은 설악산에 햇수로 9년간량 은거하면서 설악산을 비롯한 주변을 유람하였으며, 연작시인 「葛驛雜詠」(392수)을 비롯하여 「雪岳日記」, 「遊鳳頂記」, 「東遊小記」, 「五臺山記」 등 다수의 遊記를 남겼다. 다음은 인제의 龍山을 읊은 시이다.³⁶⁾

龍山麟峽頂	용산은 인제 협곡의 꼭대기에 있는데
民物與雲深	백성들은 깊은 구름 속에서 생활하네.
自有高寒樂	高寒의 즐거움이 절로 있으니
仍存淳朴心	순박한 마음이 따라서 있네.
星河垂板屋	은하수는 판잣집에 드리우고
杵碓隱杉林	절구, 방아 소리는 숲속에 은은하네.
永夜溪邊枕	시냇가에서 잠자는 길고 긴 밤
如聆太古音	마치 태고의 소리를 듣는 듯하네. ³⁷⁾

구름과 은하수에 닿을 듯 산골 높은 곳에 위치한 산촌 마을의 정경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이 그려져 있다. 용산 산골 마을을 순박한 인정이 넘치는 태고 시대와 같다고 하였다. 김창흡은 조그마한 산촌, 순박한 인정이라는 강원도 산촌 마을의 전형적인 특성을 시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36) 김창흡이 설악산 은둔 시기에 남긴 시에 대해서는 이경수, 「삼연 김창흡의 설악산 은둔과 한시표현」, 『강원문화연구』 26,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07 참조.

37) 金昌翕, 「龍山」, 『三淵集』 권9, 叢刊165, p.192.

野田黃雀不知昏	들발 참새 때 해 저무는 줄 모르고
何自奔奔競作喧	어찌 그리 분주하며 시끄럽게 다투는가.
白曲川邊忘世叟	곡백연 개울가 세상사를 잊은 늙은이
關心開閉只柴門	다만 사립문 닫고 여는 것에만 마음 쓰네. ³⁸⁾

위 시는 연작시 「갈역잡영」 중의 한 수인데, 세상사를 잊고 산골에 은거한 자신의 모습을 읊은 것이다. 해 지는 것도 모르고 들에서 모이를 찾느라 시끄럽게 다투는 참새는 명리를 좇은 속세의 사람들을 비유한다. 김창흡은 사립문을 닫아걸고 이러한 세속과 자신을 격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17세기까지 설악산은 금강산, 지리산, 청량산 등에 비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산이었다. 다음은 김창흡이 설악산을 유람하고 1710년 58세 때 지은 「東遊小記」의 일부이다.³⁹⁾

① 食堂의 泉石은 보문암의 하류 10리쯤에 있다. 바위와 샘이 맑고 깨끗하며, 골짜기가 넓게 트여있고, 붉고 푸른 벼랑과 봉우리가 사이사이에 끼어있지만 다닥다닥 붙어 가로막고 있지는 않아서 설악산 먼 봉우리들이 층층이 구름과 이내 사이에서 은은히 드러나 보이기에 앉아 만끽할 만하다. 만약 여러 산의 내와 바위를 모두 비교하여 등급을 정한다면 의심할 나위 없이 여기가 上乘이다.⁴⁰⁾

② 內山 오세암으로부터 산줄기를 넘어 보문암에 이르기 6·7리 전에 산등성이를 넘는 동안 동쪽을 내려다보면, 오직 온갖 칼날을 묶어서 세운 것처럼 우뚝

38) 金昌翁, 「葛驛雜詠」 其十, 『三淵集』 권14, 叢刊165, p.296.

39) 김창흡의 설악산 유기에 대해서는 김풍기,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의 명승의 구성과 탄생-설악산을 중심으로」, 『東아시아古代學』 33, 東아시아古代學會, 2014; 안득용, 「金昌翁 <東遊小記> 연구: 可遊者記의 서술 양상과 그 흐름에 대한 고찰을 겸하여」, 『고전과해석』 20,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6 참조.

40) 金昌翁, 「東遊小記」, 『三淵集』 권24, 叢刊165, p.495. “食堂泉石, 在普門下流十里地. 而巖泉洒落, 洞府宏暢, 夾以丹崖翠嶺, 而不至褻礙, 雪岳遠峰, 層現於雲靄間者隱隱, 可坐而挹也. 若以諸山泉石通較而定品, 則此爲上乘無疑.”

우뚝 곧장 위로 솟아 있어 날아갈 듯한 모습만 보인다. 문득 이 곳을 대하게 되면 사람이 매우 경악을 금치 못하다가 끝내는 매우 좋아하게 되니, 아침에 이렇게 훌륭한 경치를 볼 수 있으면 저녁에 달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일찍이 전국의 명승을 둘러보았지만 오직 黃山圖만이 이곳과 비슷한데, 혹 수려하고 뻑뻑하기는 이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보문암은 동쪽으로 큰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 일출이 볼 만하며, 아래에는 만장의 폭포가 있는데 승경을 갖추고 있었지만 멀어서 가보지 못했다.⁴¹⁾

①은 보문암 아래쪽 계곡의 바위가 펼쳐진 풍경에 대해 품평한 것이다. 김창흡은 우리나라의 泉石 중에서 이곳을 가장 뛰어난 곳으로 단언하였다. 인용문 ①의 뒤에 생략된 부분에서는 금강산 만폭동의 벽하담 부근, 화양계곡의 선유동 등과 비교하면서 설악산의 이곳이 가장 빼어난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였다. ②에서는 중국의 黃山과 비교하면서 설악산 풍경의 빼어남을 그리고 있다. 김창흡은 특히 바다가 보이는 광활한 전망, 웅장한 폭포(토왕성폭포) 등을 설악산의 빼어난 점으로 주목하였다. 설악산은 김창흡의 은거와 그가 남긴 시문으로 인해 명산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이후 문인들의 유람 코스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V. 현재적 의미 :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조선시대 문인 사대부들이 인식한 강원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 등의 ‘풍속’조를 보면,

41) 金昌翁, 「東遊小記」, 『三淵集』 권24, 叢刊165, p.495. “自內山五歲菴, 踰嶺而未及普門六七里許, 行跨嶺脊而東向俯視, 但見其萬劍束銳, 屹屹直上, 騰騰飛動. 乍遇之, 令人錯愕, 終焉喜怍, 便有朝睹甘夕死之意. 嘗覽海內奇觀, 惟黃山圖似之, 或恐其瑩秀森疎勝此, 而有未可知矣. 普門菴東臨大海, 可觀日出, 下有萬丈簾瀑, 其爲具勝, 邈不可及.”

강원도는 경기도를 비롯한 여타 지역에 비해 유교적 문명화가 덜 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강원도가 유교 문화의 미답지로 인식된 데에는 강릉과 원주를 제외하고는 향교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고 향약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원도는 태초의 순박한 풍속을 그대로 간직하고 토착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삼척의 오금잠제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유교 문화의 정착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강원도의 풍속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으나 자연 지리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 관동팔경을 비롯하여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등 강원도의 형승은 사대부 문인들의 대표적인 유람의 공간이었다. 고려 말 안축의 『관동와주』와 이곡의 「동유기」 등과 같은 기행 시문을 통해, 강원도의 형승이 발견되고 사람들에게 문화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나아가 강원도는 세속의 명리와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속의 공간이자, 정치적 좌절에서 오는 우수나 번뇌를 해소하는 치유의 공간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시습과 청평사, 김수증과 곡운, 김창흡과 설악산 등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강원도의 문화적 정체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한 듯하다. 2013년에 이루어진 강원도민 정체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민 스스로는 강원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소박함, 환경친화성, 농촌성, 전통’ 등을 꼽았다. 강원도민은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한 전통적이고 소박한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이외 타 지역 사람들 역시 강원도민과 거의 같은 인식을 보였다. 타 지역 사람들은 강원도민에 대해 70%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긍정적 이미지 중에서는 주로 ‘순박하다’, ‘인정이 많다’ 등을 꼽았다. 강원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사람들은 생활 여건과 교통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강원도를 거주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타 지역 사람들이 강원도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는 ‘휴가였으며, ‘강원도=휴가지’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였다.⁴²⁾

우리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

로 해석하고 이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중앙과 지역을 가르는 이분법적 인식을 반성할 때가 되었다. 맹목적인 중앙 추수를 지양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에서 보편성이 중요하긴 하나, 특히 문화의 경우 보편성으로 채워지지 않는 특수성의 영역도 가치가 있다. 강원도는 산업화된 도시문명에 찌든 현대인을 태초의 시간으로 이끌어 아름다운 산수 속에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현대의 도시문명을 쫓아가기보다는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시원적 공간, 지역의 토착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 형승과 산수가 가져다주는 휴식과 치유 등의 문화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공장과 같은 산업 시설을 확충하여 거주민을 늘리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발전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자연과 전통을 잘 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정책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42) 김원동·이태원, 『강원인, 당신은 누구십니까』, 강원일보사·하이원리조트, 2013, pp.316-319; pp.431-434. 이 조사는 『강원일보』 창간68주년 기념으로 강원일보사와 하이원 리조트가 공동 특별 기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는 2013년 1~9월에 진행되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4대 영역에 걸쳐 강원도민 2,000명에 대한 1대 1면접 조사와 전국의 외지인 1,500명 대상의 전화 면접 조사를 병행하였다.

<參考 文獻>

-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47(강원도), 한국고전종합DB.
『국역 여지도서』 책15~17(강원도), 김우철 역주, 전주: 디자인흐름, 2009.
『국역 관동지』 上·下. 原文, 강원도 편, 손승철 외 역주, 강원도, 2007.
『국역 강원도지』 上·下. 原文, 강원도 편, 최상익 외 역주, 강원도, 2005.
『조선왕조실록 강원도사료집』, 강원도, 1995.
『택리지』, 이중환 저, 이익성 역, 을유문화사, 1994.
『국역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DB.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DB.

- 金壽增, 『谷雲集』(한국문집총간 125집)
金時習, 『梅月堂集』(한국문집총간 13집)
金昌翁, 『三淵集』(한국문집총간 165~167집)
徐居正, 『四佳集』(한국문집총간 10집)
安 軸, 『謹齋集』(한국문집총간 2집)
李 穀, 『稼亭集』(한국문집총간 3집)
鄭 澈, 『松江續集』(한국문집총간 46집)
洪仁祐, 『耻齋遺稿』(한국문집총간 36집)

- 김풍기, 「조선전기 관료문인들의 강원도 인식」, 『강원문화연구』 15,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96.
_____, 「『東國輿地勝覽』의 江原道 記述 方向 試論」, 『강문문화연구』 16,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97.
_____, 「謹齋 安軸의 詩文에 나타난 江原道論」, 『강원문화연구』 17,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98.
_____, 「耘谷 元天錫의 강원도 인식과 은거의 의미」, 『강원문화연구』 18,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99.
_____, 「허균의 강원도 인식과 민속문화론」, 『박물관지』8, 강원대학교박물관,

- 2001.
- _____,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의 명승의 구성과 탄생-설악산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古代學』 33, 東아시아古代學會, 2014.
-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 안득용, 「金昌翁〈東遊小記〉 연구: 可遊者記의 서술 양상과 그 흐름에 대한 고찰
을 겸하여」, 『고전과해석』 20, 고전문학한문학회, 2016.
- 안세현, 「강원 지역의 유교 문화와 지역성 - 향교·향약의 정착 과정을 중심으
로」, 『동아시아古代學』 31, 東아시아古代學會, 2014.
- _____, 「여말선초 八景詩의 창작 양상과 삼척 竹西樓 八詠」, 『강원문화연구』
34,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15.
- 이경수, 「곡운 김수증의 은둔시」, 『강원문화연구』 25,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06.
- _____, 「삼연 김창흡의 설악산 은둔과 한시표현」, 『강원문화연구』 26,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07.
- 이종묵, 「『臥遊錄』 해제」, 『臥遊錄』,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허남욱·권혁진, 『곡운과 다산. 곡운구곡을 걷다』, 화천문화원, 2013.
- 김원동·이태원, 『강원인: 당신은 누구십니까』, 강원일보사·하이원리조트,
2013.

Abstract

*The Cultural Identities of Gangwon Area in Joseon dynasty and its Current Meaning / Ahn Se-hyun**

In this paper, I tried to navigate the cultural identities of Gangwon Area in Joseon dynasty and that searched for its current meaning.

In Sillok(實錄), geography and anthologies, Kangwon area was negatively recognized: A solitary society isolated by mountain villages, an economically backward area, an area where Confucianism has not been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Kangwon area was seen as an unsophisticated source space, and was noted as space of Unworldliness and Healing through traveling Scenic spot.

Now we should refrain from blindly pursuing the center and that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ultural values of the region. Modern people can repair the mind and body of the city through a travel to Gangwon area. Therefore, we should actively develop cultural elements of Gangwon area.

【Key Words】 Gangwon Area, Cultural Identities, Confucianism, Scenic spot, Travel poetry, Travel essay, Unworldliness, Healing

투고일 : 5월 9일, 심사완료일 : 6월 16일, 게재확정일 : 6월 16일

* Associate professor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shahn@kangwon.ac.kr